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웃음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웃음이 중세에는 일상에서 합법화되지 않았다. 바흐쾨(Bakhtin)은 <프랑수와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에서 중세시대 문화의 특징은 일방적인 엄숙함의 봉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미 초기 기독교에서는 웃음을 비난했고, 고대의 구경거리 형식들, 무언극의 웃음과 광대를 반대했다. 기독교인들은 엄숙해야 하고,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고 슬퍼해야만 했다. 기독교는 이런 이유로 웃음을 금기시한 것이다.

신혜선의 'Heyday(전성기)'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화'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등장한다. 관객은 노인들의 웃음에서 중세시대 웃음의 억압적인 장치를 상기할 수는 없지만, 웃음이 지닌 다양한 뉘앙스를 발견한다. 그들은 활짝 웃고 있지만, 긍정적인 웃음, 공허한 웃음, 인생을 초탈한 웃음, 어색한 웃음, 웃음을 삼킨 웃음 등을 발견하게 된다. 웃음의 다양성은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웃는 남자에 나타나는 '검은 웃음(희-비극)'을 상기시키고, 들뢰즈(Deleuze)가 베이컨(Bacon)의 미소에서 불안한 미소, 신체가 사라지고 나서도 남을 것 같은 미소의 의미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신체가 사라진 후 남는 미소는 노인들이 죽음 이후에 상기되는 웃음이며, 조화는 반대로 영원성을 상징적으로 압축한다. 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꽃은 웃음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도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왜? 꽃이 아름다운 것인가? 쇼펜하우어(Schopenhauer)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식물은 생존하기 위한 맹목적인 충동을 나타내는데,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성기(수술)'를 가장 높은 곳에 두어 잘 보이게 하는 당당함에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경우는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자신의 성기를 가리는 행위를 했다. 이것은 일종의 수치심이 죽음의 현상으로서 신이 경고한 것처럼 죽음은 생식기를 가리는 행위로 나타난다. 즉 수치심은 신의 입장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여기에서 신혜선의 '조화'를 생각해 보면, '조화'는 수치심을 모르는 꽃의 속성과 함께, 영원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인간은 노년의 모습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사진에 찍히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꽃처럼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다. 노년의 상태는 깊은 주름살과, 곱지 않은 살결, 굽어진 허리로 표현된다. 청년 시절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이며,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노년의 모습에서 신혜선의 'Heyday(전성기)'는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게 하고, 노년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며, 라블레(Rabelais)가 말한 웃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한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관객이 찾아야 할 몫이다.